

2012년 중국경제와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안 유 화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yuhuaan@kcmi.re.kr



목 차

 Part A : 2012년 중국경제 전망과 주요이슈

 Part B : 2012년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Part C : 한국경제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Part A

● 2012년 중국경제 전망과 주요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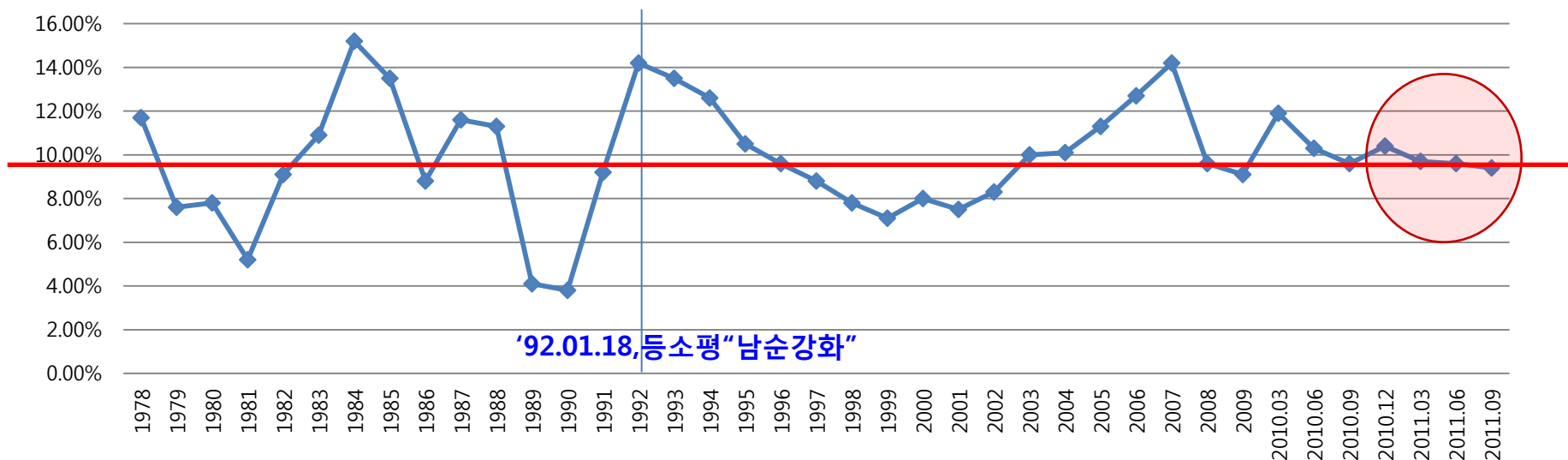
중국경제 전망 – 2012년 중국경제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주요이슈 – 부동산 경제 연착륙 여부와 지방부채 리스크

중국경제 현황과 2012년 성장을 전망

- ❖ 2012년 중국경제의 성장을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 전년도 기준 8.4% 내외 예상
 - 2011년 9.2% 성장률, GDP규모 7.03조\$, 1인당 GDP 5,084\$ 예상
 - 2012년 투자,수출,소비 3대 수요가 전년도 기준 각각 20%,14%,16.5% 성장률로 가정할 경우 GDP 성장률 8.4% 내외 예상
- ❖ 2012년 거시경제 정책 기초: "적극적인" 재정정책 +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
 - 재정정책: 감세정책실시와 서비스산업 중심의 소비확대 추진
 - 통화정책: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출완화, 기준율 3~5회 인하를 통한 유동성 증가 가능, 금리 수준 유지할 전망

1978~2011년 중국 GDP 성장률 추이



2012년 중국 거시경제 지표 전망 (연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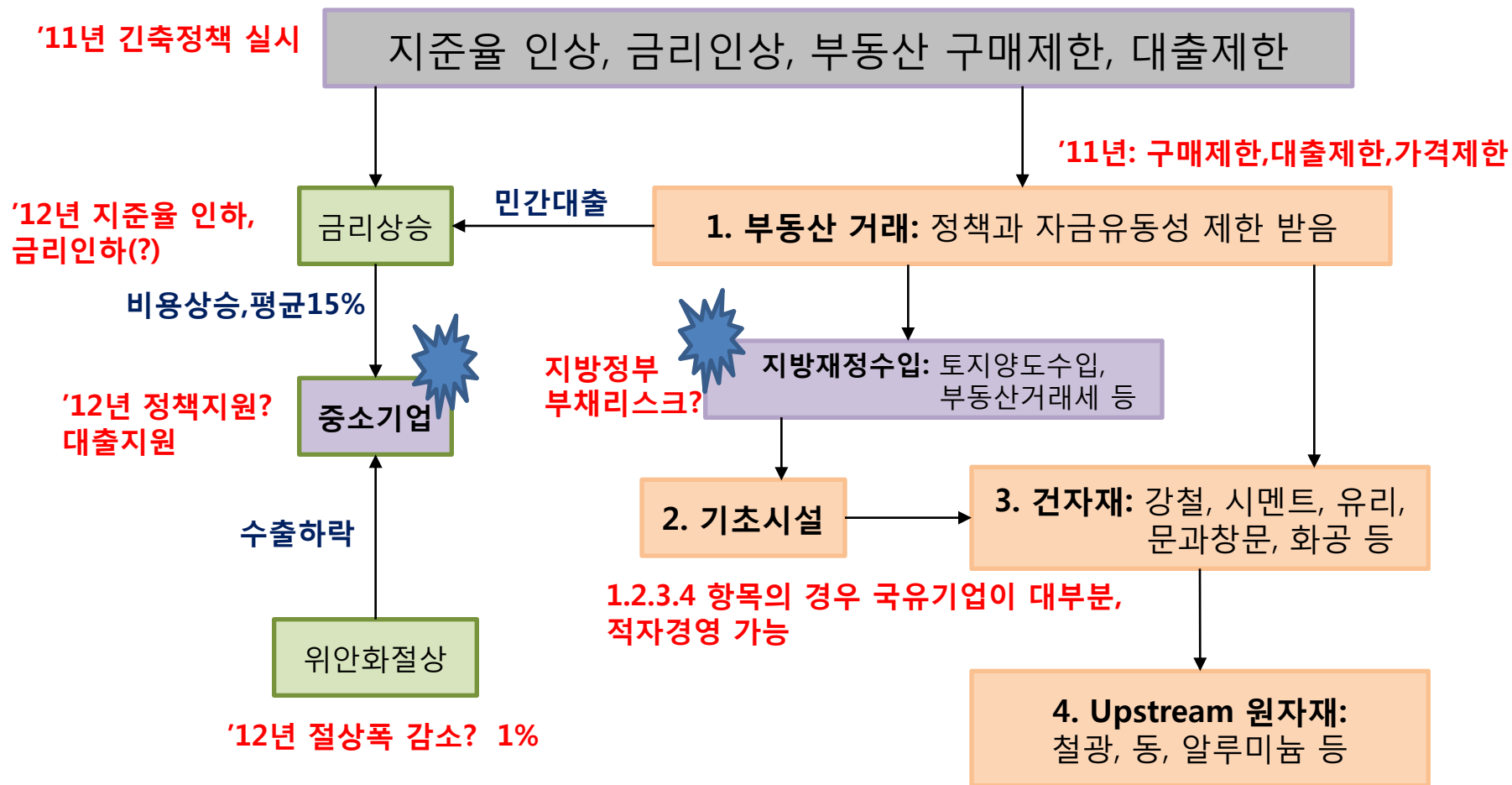
자료: 통계국, KCMI

거시경제지표	2012(E)	2011(E)	2010	2009	2008	2007
GDP(%)	8.4	9.2	10.4	9.2	9.6	14.2
소비공헌율(%)	4.5	4.7	3.8	4.4	4.2	5.6
투자공헌율(%)	4.4	4.9	5.6	8.4	4.6	6.1
순수출공헌율(%)	-0.5	-0.4	0.9	-3.6	0.8	2.5
CPI(%)	3.5	5.4	3.3	-0.7	5.9	4.8
PPI(%)	3.0	6.1	5.5	-5.4	6.9	3.1
소매판매총액(%)	16.5	17.1	18.4	15.5	21.6	16.8
공업부가가치 증가율(%)	12.8	13.9	15.7	11.0	12.9	18.5
수출(누적전기대비%)	14.0	20.0	17.9	-16.0	17.4	25.8
수입(누적전기대비%)	20.0	26.0	25.6	-11.2	18.5	20.8
무역흑자(억달러)	626.0	1,551.0	1,831.0	1,960.6	2,954.6	2,622.0
고정자산투자(명목,%)	20.0	23.8	24.5	30.5	26.1	25.8
재정수입증가율(%)	15.0	26.5	21.3	11.7	19.5	32.4
재정지출증가율(%)	15.9	24.7	17.8	21.9	25.7	23.2
재정적자 규모(억위안)	-9,000	-7,000	-6,773	-9,500	-2,362	508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1.7	-1.5	-1.7	-2.8	-0.8	0.2
M2(%)	14.5	12.7	19.7	27.7	17.8	16.7
신규 대출(누적/조)	8.0	7.40	7.95	9.59	4.91	3.63
1년예금금리(%)	3.50	3.50	2.75	2.25	2.25	4.14
위안화 환율(위안/달러)	6.27	6.33	6.62	6.83	6.83	7.30
위안화 환율 절상폭(%)	1.0	4.6	3.1	0.1	6.9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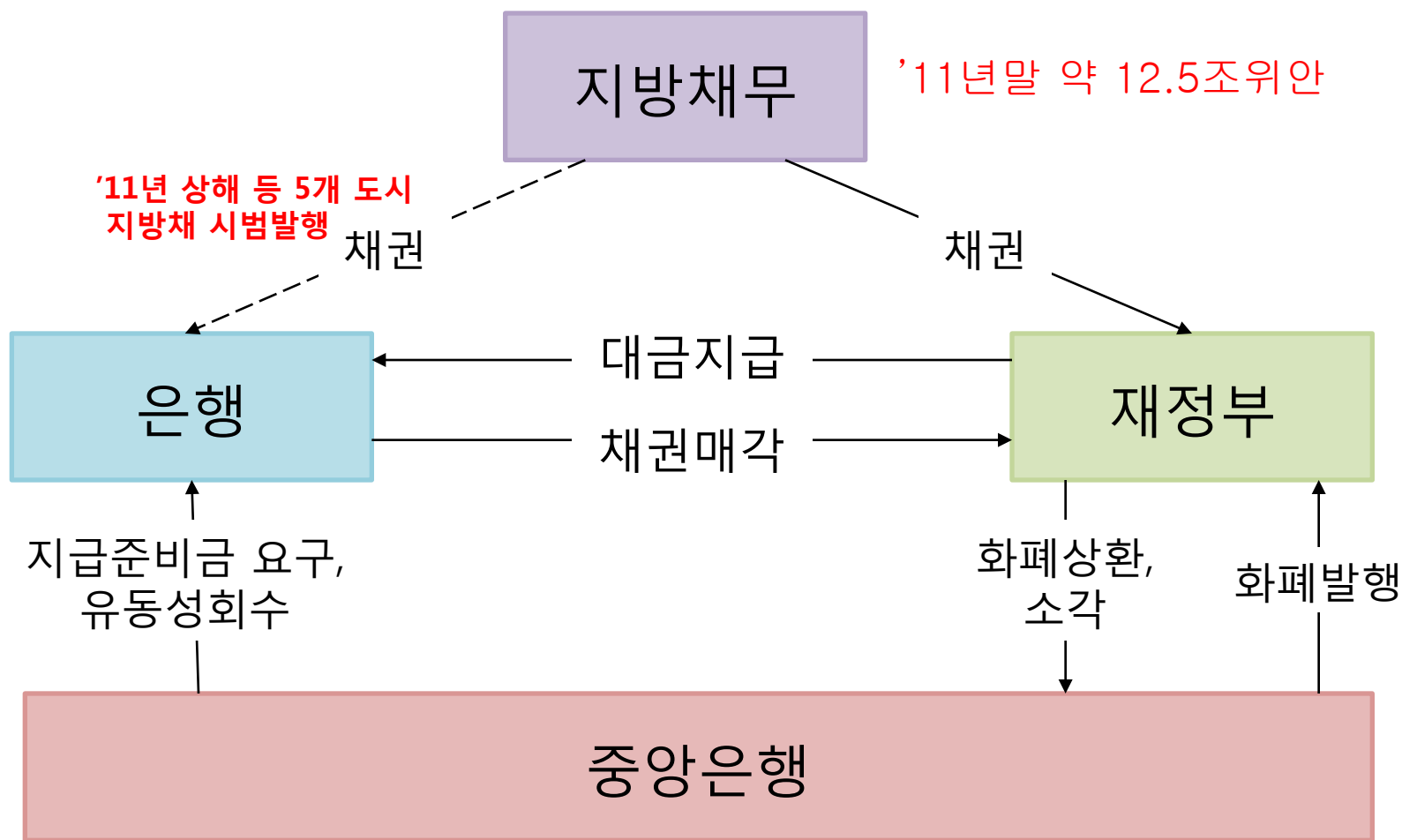
중국경제 주요이슈[1] – 경제발전모델 전환

정책 대응	투자중심의 경제발전전략	소비주도의 경제발전전략
재정정책	느슨함, 고정자산투자 중심	소비확대를 위한 재정정책 , 경제구조개혁에 착안점을 둠
통화정책	완화, 대출을 통한 투자확대	중소기업, 고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완화, 고소득 경제구조 확립 유도
경제에 대한 영향	고성장률 지속 가능하나, 과소소비, 환경파괴와 과잉투자 심각, 지속적인 경제성장동력 결핍	연착륙 시도, 지속적인 녹색경제 성장을 위한 신흥산업 육성 가능
CPI에 대한 영향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신규대출규모, 속도와 정비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정책강도가 높을수록 단기시장영향이 빨리 나 타나지만 추후 불안요인이 커질 것	추진 상황에 따라 시장영향이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
지속가능성 여부	단기영향에 그침	장기적인 영향
2012년: “은중구진(穩中求進)”, 정부의 재정실력과 정책운영공간이 아직 남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음		
실행가능성	계속 해왔던 것으로 실행하기 쉬움 (경로의존성, 성과 예측 가능)	환경여건과 현실정책 실시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 (성과 불확실성 높음)

중국경제 주요이슈[2] – 부동산 경제 리스크



중국경제 주요이슈(3) –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Part B

2012년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 주식시장 - 15~25% 상승 기대, 2100~3500 내외
- 채권시장 -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전망
- 선물시장 - 신상품출시, 농산품선물시장 호전 기대

중국 금융감독관리기관의 2012년 정책동향

중국인민은행 (P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건(穩健)'한 통화정책을 펴나가되 대응성, 유연성, 전망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 - 국내 및 해외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금리 자율화 개혁을 추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능력과 수준을 높임: 서민주택 건설, 국가의 전략적 산업, 중소기업과 '삼농(三農)'분야에 대한 대출지원 확대 - 경제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3高"산업과 부동산 산업 대출제한, 임대주택 대출확대 - 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 및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감독 시스템 완비화, 리스크 관리 강화와 제도구축, 지방부채 리스크 해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시의 질적변화와 투자자 신뢰강화: 주식 발행 제도의 시장화, 시장퇴출제도 및 배당제 개혁 등 조치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리스크 예방능력 향상 도모: 민생보장시스템건설 강화 - 사회빈곤층과 약자를 위한 보험서비스강화: 농민공, 유동성인구를 위한 사회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확대 - 사회보장체제개혁 진행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강화: 양로보험체제와 의료보험 서비스 강화
외환관리국 (SA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자본 유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급격한 유입과 유출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자본항목자유태환의 점진적 추진: 외환시장 육성 가속화, 무역투자 편의를 촉진하고 관리방식 개혁

2012년 통화시장

❖ 총액통제는 적당한 수준에서 완화될 것이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진행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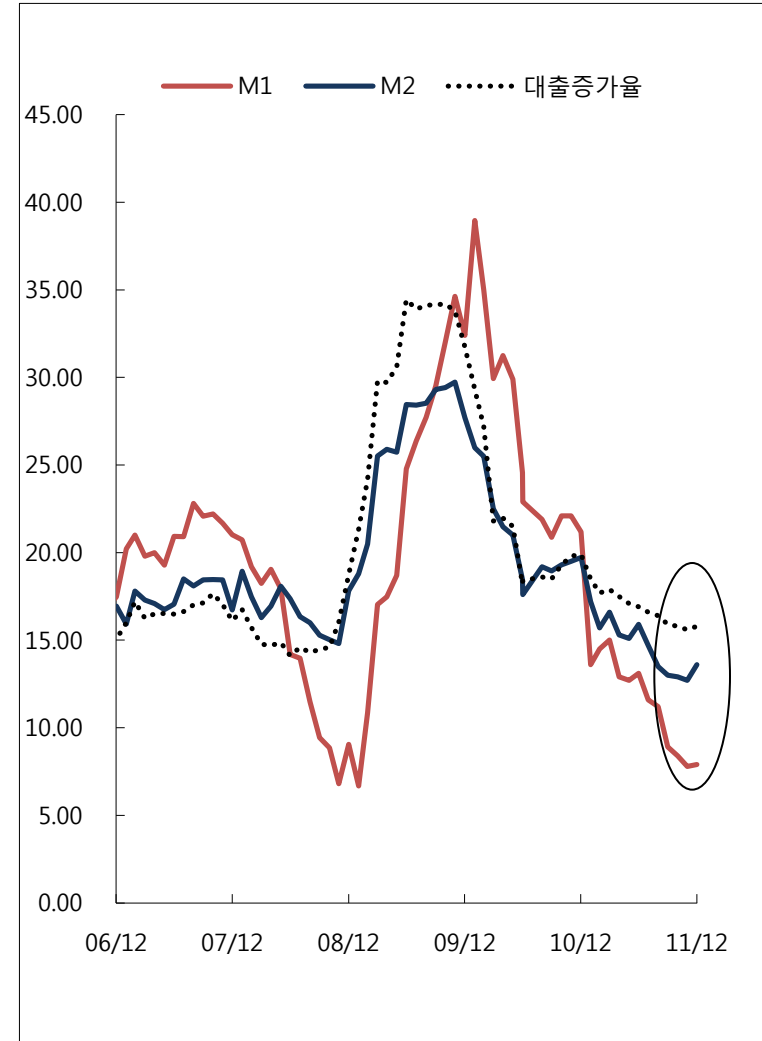
- 2011년에 비해 유동성을 적절히 느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하는 전제하에서 진행될 것임
- M2의 증가율은 2011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약 14.5% 정도 예상**

❖ 통화정책 실행의 주요조치

- **법정지급준비율: 3~5회 인하 예상**
- 중앙은행 채권발행
- 예대금리 조정: 유지 전망
- 공개시장업무: '11년 11월까지 총 23,407.02억위안 자금을 순투입
- **창구지도, 즉 대출통제정책: 2012년 누적 신규대출 규모 약 8조 위안 규모 예상 (증가율 15% 이하)**

❖ 유동성 완화는 통화시장에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임

- '11년의 경우 **머니마켓펀드 수익률 평균 3.47%**로 주식펀드의 -24.95%, 채권펀드의 0.45%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보임
- '11년 10월기준으로 **역외위안화예금은 전년대비 185%, 역외위안화현금거래와 선물거래액 규모가 2~3배 성장, 역외위안화 채권시장이 267% 성장**
- '12년 **위안화무역결제액규모 3.7조위안, 전체무역액의 15%; 역외위안화예금(홍콩+싱가포르) 1.5조위안; 역외위안화채권발행량 2400억위안(수익률 3.9%) 기대**



2012년 채권 발행시장

❖ **2011년 채권발행 규모 7.81조위안으로 전년수준(8.83조)보다 11.6% 감소**

- 국채 및 중앙은행 채권의 발행비중이 37.8%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년대비 크게 감소. **금융기관채권의 발행이** 전년 동기대비 74.8%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채권발행 종류가 다양해진 측면도 있음

❖ **2012년 채권발행 규모는 2011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됨**

- **"12.5"규획기간의 중점항목 투자자금 조달과 지방정부 부채자금 조달 증가**

-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채 발행이 증가**, 약 2500억 위안 규모(이미 신청한 것이 3000억위안임)

❖ **채권시장 대외개방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

- 위안화 절상 기대, 홍콩 역외 위안화 시장 성장 및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중국기업 및 외국기관**의 **역내/역외 채권발행은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

- 더욱 많은 외국기관투자자의 채권시장 참여를 유도 할 것

❖ **2012년은 "적극적으로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고 정부의 관리감독완화와 시장화 방향으로 제도구축 추진**

- 채권시장 개혁과 시스템구축: 시장발행화 실현과 **도시건설채권 발행제도 구축**

2011년 채권발행 회수와 규모

자료: wind, KCMI

종류	발행회수 (기)	비중 (%)	발행총액 (억위안)	비중 (%)
국채	73	4.21	15,417.59	19.73
지방정부채	16	0.92	2,000.00	2.56
기업채	196	11.30	2,515.48	3.22
금융채	143	8.25	22,940.30	29.36
중앙은행어음	100	5.77	14,140.00	18.10
단기융자채(CP)	640	36.91	10,162.30	13.00
회사채	83	4.79	1,291.20	1.65
MTN	458	26.41	8,199.93	10.49
국제기구채권	2	0.12	50.00	0.06
정부지지기관채	8	0.46	1,000.00	1.28
ABS/MBS	6	0.35	12.79	0.02
전환사채	9	0.52	413.20	0.53
합계	1,734	100.00	78,142.79	100.00

2012년 채권 유통시장

❖ 2011년의 채권시장은 물가상승 억제 등을 위한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 실시로 조정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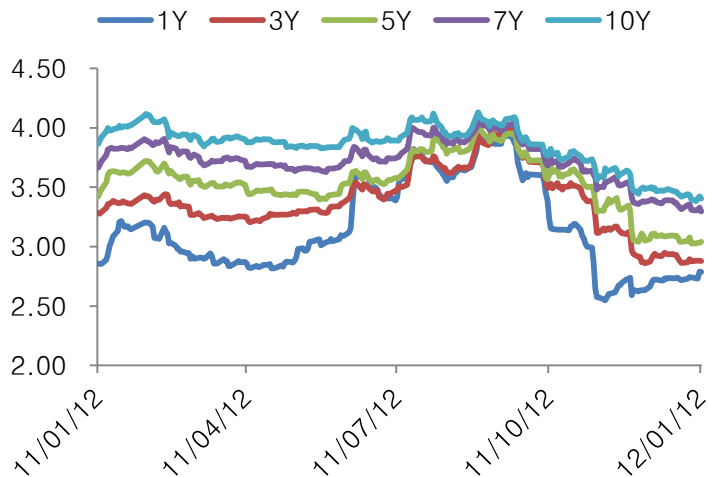
- 금리는 물가상승 억제 등을 위해 2011년 3차례에 걸쳐 총 150bp인상
-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국채권종합지수는 101.25p로 전년동기대비 1.48% 상승

❖ 2012년 채권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클 전망

- **상업은행:** 지준율 인하 전망하에 내년 은행의 채권 수요량이 많아질 것, 대출금리차익에 따른 수익구조 한계를 벗어나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주체로서의 은행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채권시장의 유동성 증가가 기대됨
- **보험회사:**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보험회(CIRC)의 보험자본금의 회사채투자에 완화정책과 투자다변화 전략으로 채권수요는 증가될 것
- **증권회사와 펀드회사:** 기관투자자의 펀드자금 확대에 따라 회사채 시장에 대한 펀드자금 투자확대가 기대됨

2011년 중국 국채수익률 추이

자료: wind, KCMI



2012년 채권시장 수요와 공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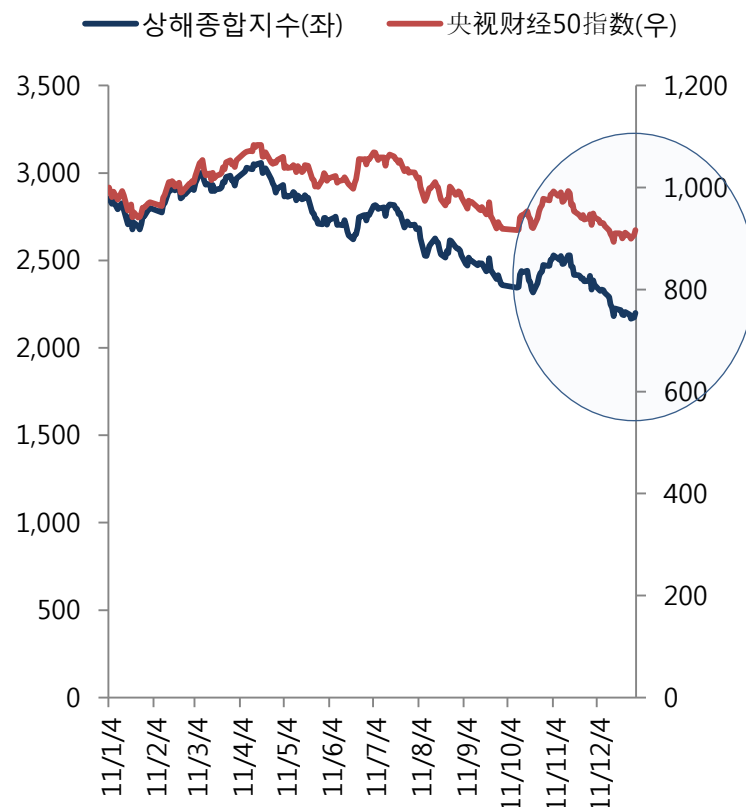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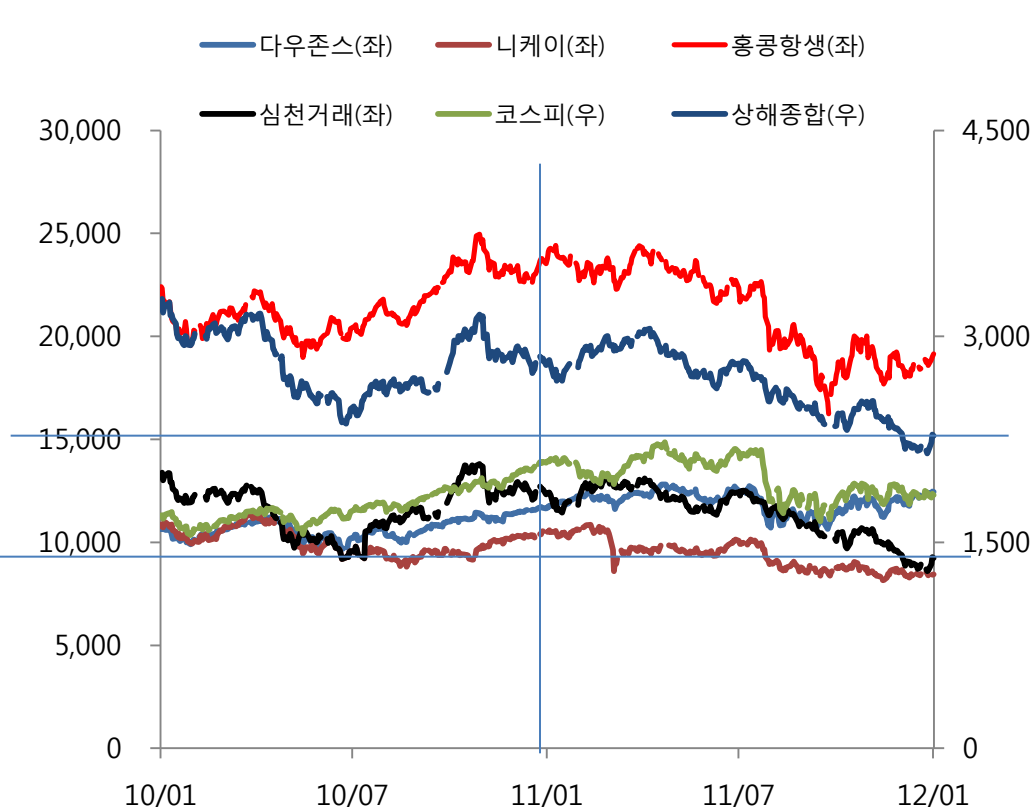
(단위: 억위안)

	발행	만기	순증가액	자금출처	금액
국채	16,950	9,303	7,647	은행	38,152
정책성금융채	16,160	8,030	8,130	보험	3,600
지방채	4,500	2,000	2,500	채권펀드	500
은행중소기업 금융채	2,500		2,500		
신용채	20,135.5	11,443.5	8,692		
그중: 단기용자채	7,888.5	7,928.1	-39.6		
MTN	6,492	3,234	3,258		
기업채	3,955	235	3,720		
회사채	1,800	46.4	1,753.6		
순 공급증가액 (중앙은행어음 불포함)	60,245.5	30,776.5	29,469	수요합계	42,252

자료: wind, KCMI

2011년 주식시장 흐름과 2012년 전망

- ❖ 2011년 주식시장: 경제성장 9.2% 에 비해 상해주식시장은 연초대비 -22.9% , 심천 주식시장은 -28.57%, 央视财经50指数 -8.3%
- ❖ 2012년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유동성 증가 및 기업실적 분배에 대한 기대심리로 2011년 비해 완전한 상승추세 (15~25%)기대
 - 중국 주요 IB 19사가 예상한 2012년 중국 상하이 A증시의 주가밴드의 평균치는 **최저 2,259 최고 3,500 중간 값 2,650**



중국 주식시장과 거시경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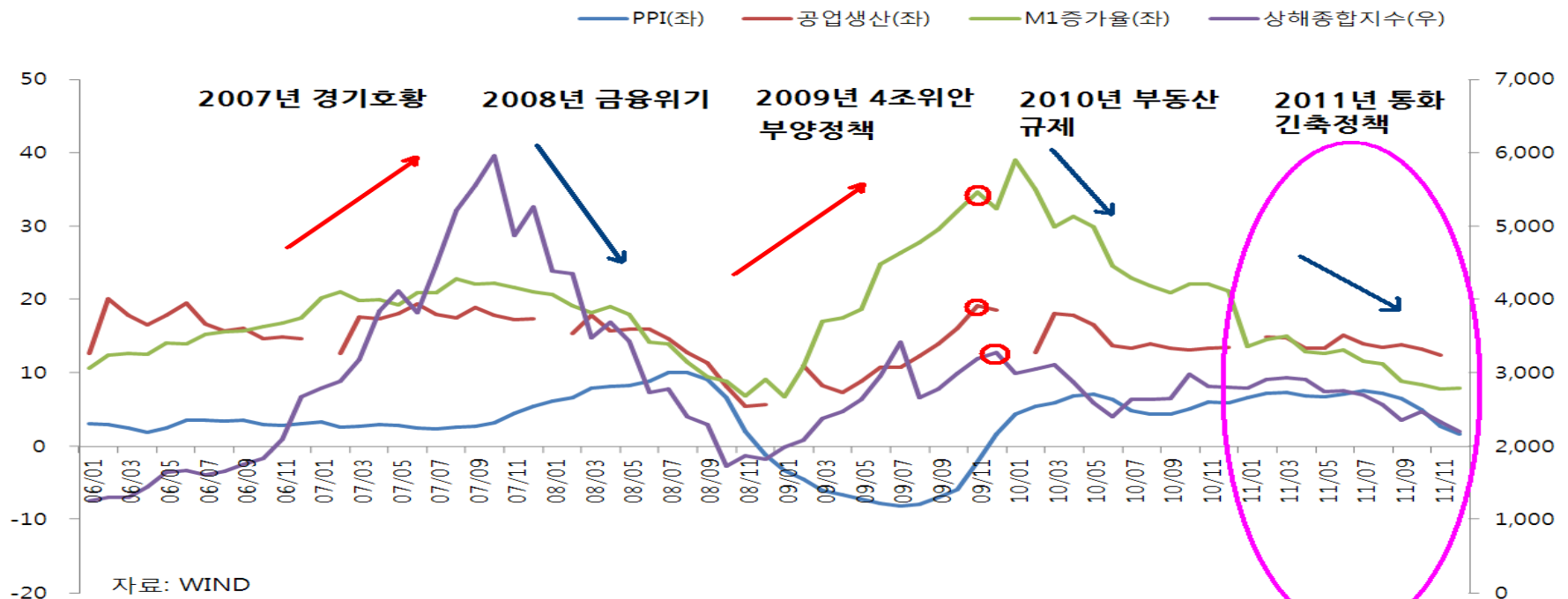
중국 주식시장 3대 영향요인

기업실적: 2011년 약 28% 이익증가율 실현, 2012년 조금 호전된 상황을 기대가능

거시경제 및 정책환경: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정책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시장에 부정요인으로 작용

국제경제환경: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경제회복 여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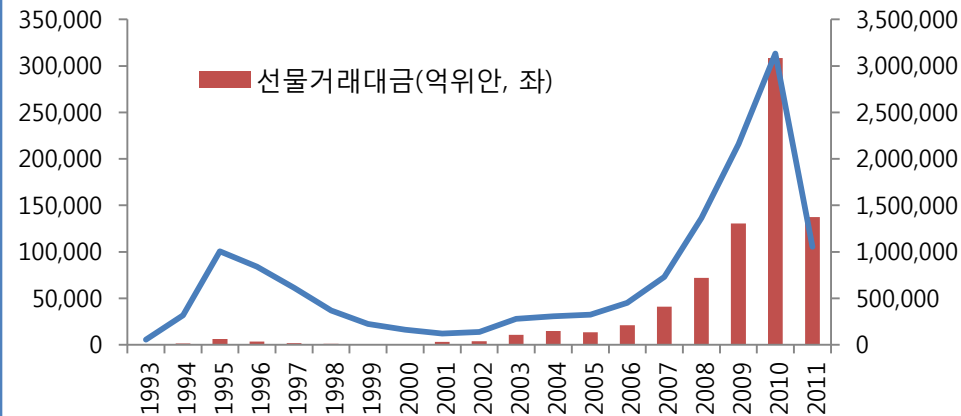
중국 주식시장 VS. 중국 정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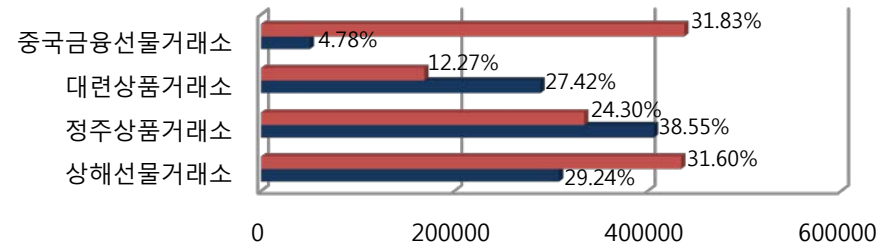
2011년 중국 선물시장 현황

- ❖ **2011년 총거래대금 137조 5134억 위안, 총거래량 10억 5408만 8664 계약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1.03%, -32.72% 하락**
 - 상해선물거래소가 거래대금과 거래량 모두 각각 -29.62%, -50.44%로 가장 큰 하락을 보임. 대련상품거래소로 각각 -19.07%, -28.31%로 하락, 정주상품거래소는 거래대금은 8.17%의 증가를 보인 반면 거래량으로 -18.04% 하락을 보임
 -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성장:** CSI300지수선물은 거래대금기준으로 6.56%, 거래량 기준으로 9.89% 성장
- ❖ **2011년 선물업은 조정을 받음**
 - 거래량과 거래대금 대폭하락으로 거래수수료가 전년대비 -20% 하락, **업계 이익률 하락폭이 약 -35%**
- ❖ **주요 거래 종목: 주가지수선물, 농산품과 금속선물**
 - 거래금액 기준으로 앞 10위: 주가지수선물, 목화, 천연고무, 구리, 백설탕, PTA, 대두유, LLDPE, 아연과 철근
 - 거래량기준으로 앞 10위: 목화, 백설탕, PTA, 천연고무, LLDPE, 철근, 대두유, 아연, 지수선물과 대두박
- ❖ **2011년 거래대금으로 중금 1위, 거래량으로 정주상품거래소가 1위**

중국 선물시장 추이(1993~2011)



2011년 중국 4대 선물시장 거래현황



	상해선물거래소	정주상품거래소	대련상품거래소	중국금융선물거래소
■ 거래대금(억위안)	434534.36	334185.15	168756.19	437658.55
■ 거래량(천수)	308239.14	406390.664	289047	50411.86

자료: <http://www.cfachina.org/news.php?classid=108>

2012년 선물시장 전망

- ❖ **2012년의 중국선물시장: "질적"성장을 위한 제도구축 중심과 신상품 출시 기대**
 - 금융선물상품 출시 기대: **국채선물**, 중국국채잔액은 6.4조위안으로 현물시장규모가 아주 크므로 전망이 밝음.
이 밖에도 **CSI500지수선물**, **창업판지수선물** 등 출시도 준비 중
 - 상품선물옵션시장의 출시 기대: 거래량이 많고 거래역사가 긴 주요상품을 기초로 하는 **상품선물옵션상품** 출시가능
 - 원유선물 출시가 빨라질 것: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생산경영에 어려움 조성,
원유선물 출시로 선물시장을 활용한 안정적인 생산원가 확보가 필요함
 - 선물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 질 것: 대외개방 진척이 빨라지면서 **역외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 **2012년 선물시장 흐름: 지속적인 조정이 예상됨 ,상반기 하락, 하반기 유동성 완화로 점차적으로 회복양상 기대**
 -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에 의한 유동성 증가로 거래량과 거래대금면에서 **전년대비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과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으로 **조정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농산품, 금선물은 완만한 상승흐름을 보이는 대신에 금속, 화공관련 선물은 지속적으로 조정** 예상됨
- ❖ **2012년 선물업: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산업집중도가 가속화될 것**
 - **2011년 선물업 집중도가 높아짐:** 약 1/3되는선물회사가 적자 발생, 절반이하가 ROE 3%보다 낮음.
앞 5순위 선물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25%, 전년동기대비 4.5% 증가,
특히 증권계선물회사는 영업자원과 주가지수선물업에서 우세확보
 - 2012에도 규모가 작은 선물회사는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중국선물업 발전도약시기: 거래종목 증가와 투자진입문턱 인하 등 정책적 혁신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12년 증권업 – 국내.역외 M&A 지속증가

❖ 2011년 IPO 중국 기업 총 356건 상장, 자본조달 규모 615.32억 달러, 세계 IPO의 58.1%(건수기준)

- '10년에 비해 41.6% 하락

❖ 2011년 중국M&A시장 2배 성장, 최근 6년이래 최고수준

- 총 1,157건의 인수합병, 가격발표한 985건의 총거래금액은 669.18억달러

❖ 2011년 VC모집총액 282억달러, VC/PE투자회수 배수 평균 7.78배

- 2011년 중국 VC시장 자금조달, 투자, 투자회수 모두 역사기록 달성

- 90%이상 위안화펀드 결성

❖ 2011년 PE투자 695건으로 275.97억달러(643건)로 역사기록

- PE조성펀드수 235개로 2010년의 2.87배

- 자금조달 규모는 388.58억달러(221개)로 전년동기대비 40.7%

- 투자회수는 150건만 발생,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

IPO투자회수가 대부분이며 135건으로 전년대비 15.6% 감소

2011년 세계기업 IPO 현황

상장기업	조달규모 (US\$M)	비중	상장수	비중 (%)	평균조달 금액 (US\$M)
중국기업	61,532.28	47.9	356	58.1	172.84
비중국기업	66,823.90	52.1	257	41.9	260.02
합계	128,356.18	100.0	613	100.0	20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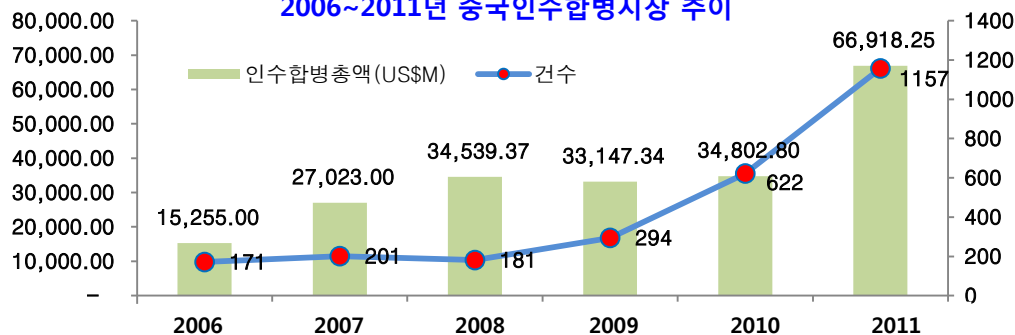
2011년 중국기업 역내외 IPO 현황

시장	조달규모 (US\$M)	비중(%)	상장수	비중 (%)	평균조달금액 (US\$M)
해외 시장	17,812.95	28.9	75	21.1	237.51
중국 역내시장	43,719.33	71.1	281	78.9	155.58
합계	61,532.28	100	356	100	172.84

2011년 중국기업 역내외 M&A 현황

시장	건수 (건,%)	건수 (금액 발표)	인수금액 (US&M,%)	평균인수금액 (US\$M)
해외인수	110 (62.5)	82	28,098.92 (80.4)	342.67
외자 중국 역내인수	66 (37.5)	41	6,860.47 (19.6)	167.33
합계	176	123	34,959.39	284.22

2006~2011년 중국인수합병시장 추이



자료: www.zdbchina.com

자료: <http://research.pedaily.cn/201201/20120110290229.shtml>

Part C

한국경제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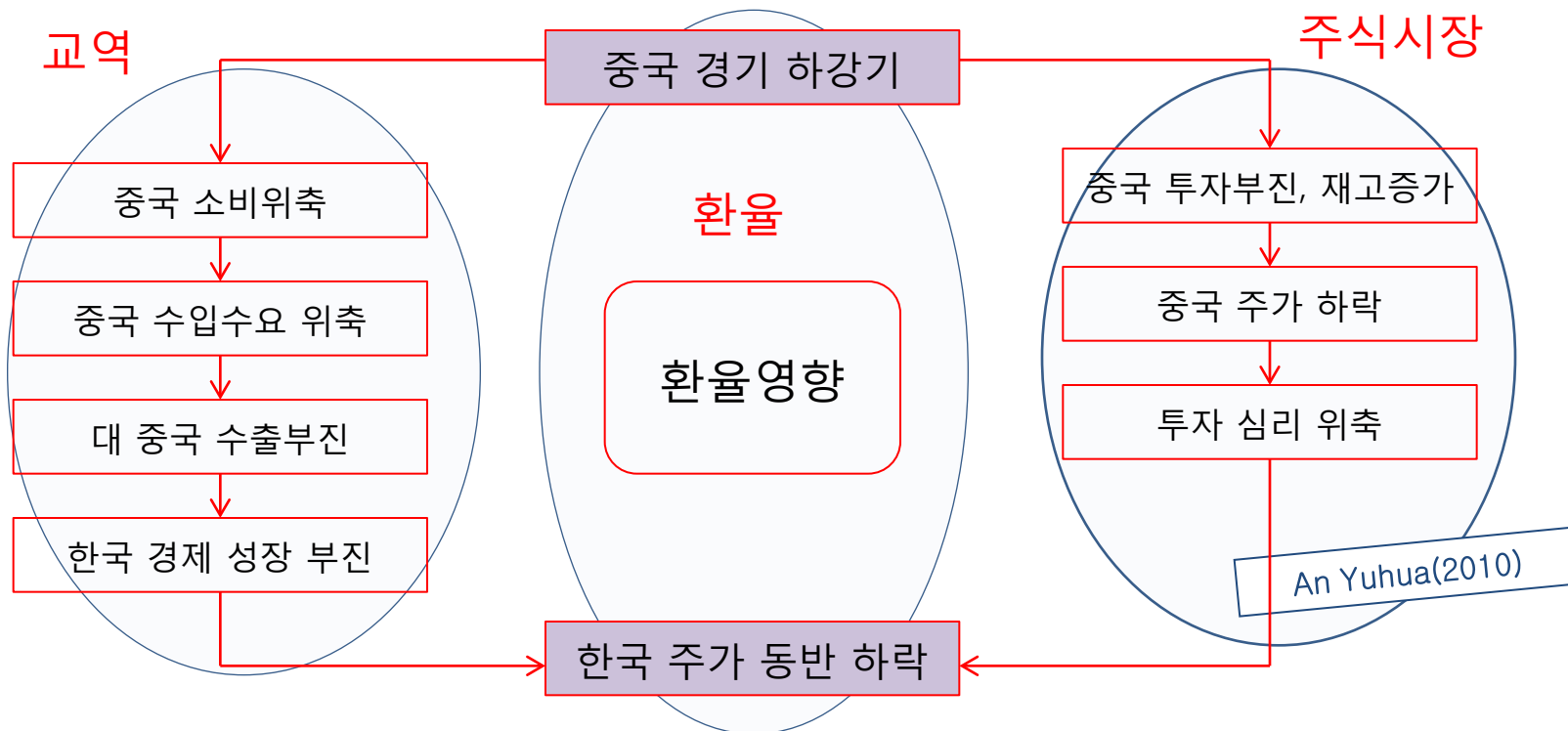
중국경제와의 동조화 정도가 커짐

- 중국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분석 필요
- 後 금융위기시대 중국경제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응전략 필요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경로

❖ 한국시장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은 크게 **교역**, **환율** 및 **주식시장** 세 가지 경로로 분석해 볼 수 있음

<그림> 중국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경로



자료: An Yuhua, <<한국 주식시장과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 Capital Market Perspective, 2010 Vol.2, No.3, P.54

교역경로(1): 중국 수출 vs. 한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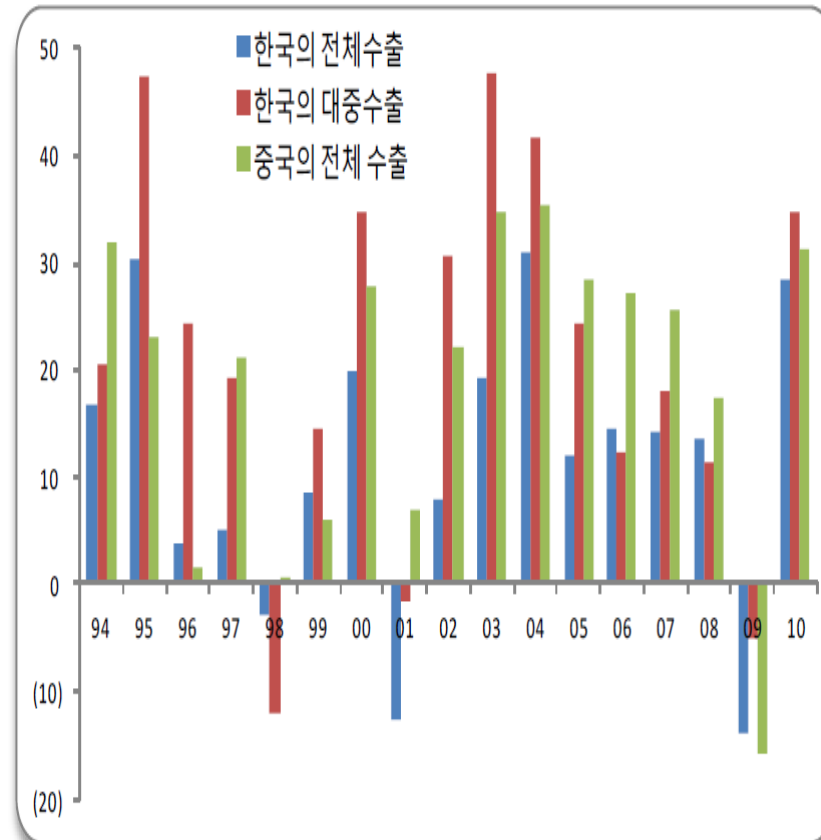
❖ 중국의 가공무역 구조에서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국 완제품 수출 둔화에 따른 한국의 대중 자본재, 중간재 수출 둔화 가능성 있음

- 2010년 기준 소비재 수출은 3%에 불과하고 자본재(49%)와 중간재(48%)의 수출이 주를 이룸
- '00년~'10년 중국의 수출 증감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전체 수출의 상관계수가 각각 0.89와 0.84에 달함

❖ 2012년 올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성장의 동반 둔화가 우려되고 경기 변동성도 확대될 전망

- 대 중국 수출은 이미 금년 1~9월 17.3%로 둔화
-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00년 10.7%에서 '11년 1~9월 중에는 24%로 확대, 홍콩을 포함할 경우 29.5%

한국-중국의 수출(전체 및 대중) 비교



*자료: CEIC

교역경로(2): 중국 물가 vs. 한국물가

❖ 대중 수입 비중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물가 상승이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한국의 물가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중국의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 최저임금 인상 조치,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등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물가 상승세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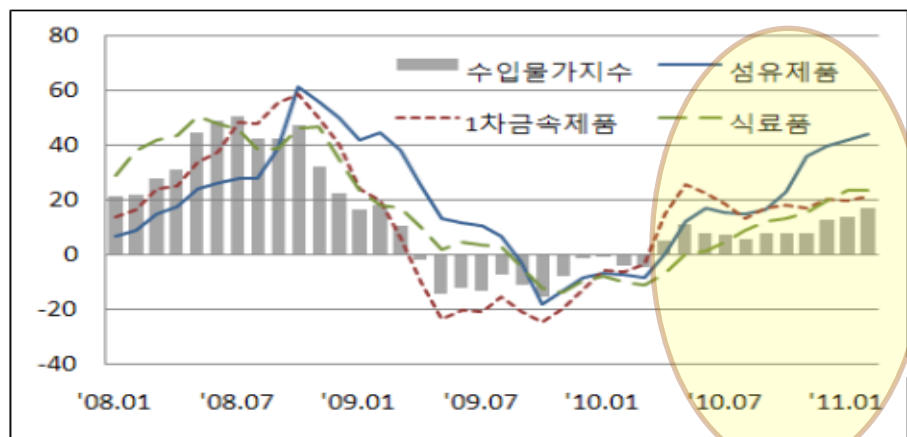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와 중국 인플레이션은 한국 인플레이션의 변동에 유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음

- 두바이 유가의 1% 상승은 즉각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0.012%** 높이지만, 3개월 후부터는 유의한 효과가 사라짐

- 중국 인플레이션의 충격은 즉각적인 효과는 없으나, 시차를 두고 3개월 후부터 한국 물가상승률을 **0.13%** 상승시키며, 10개월 후에는 최대 **0.15%** 상승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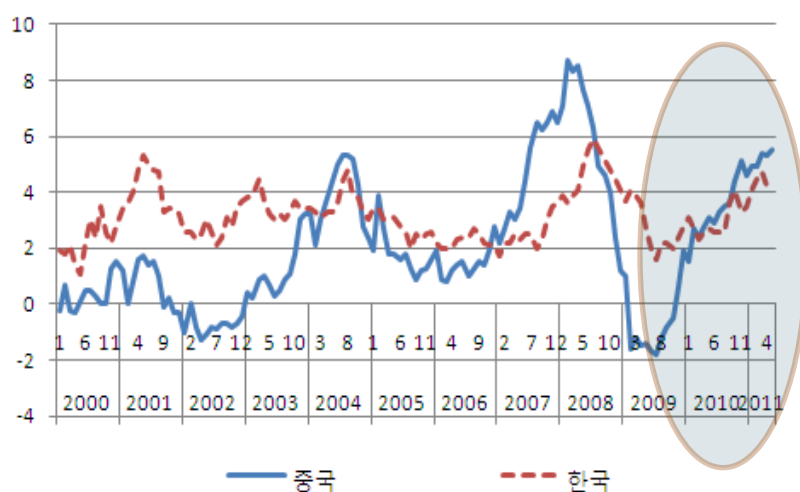
대중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수입물가 상승률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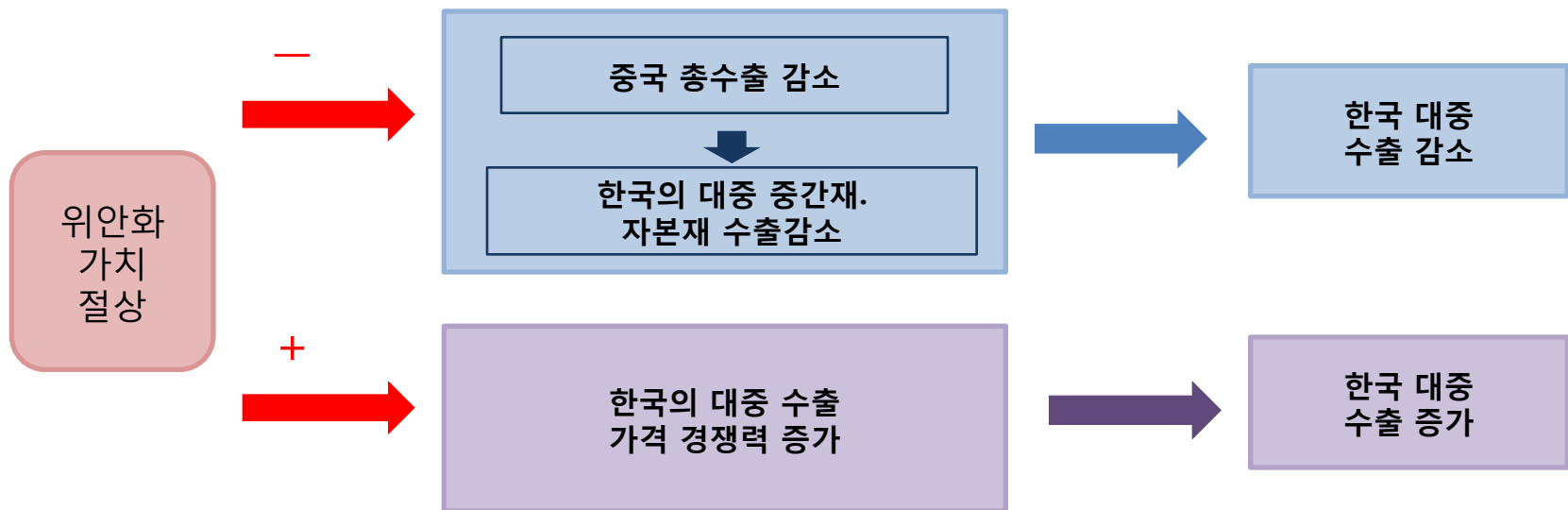
중국과 한국의 CPI 물가 상승률



환율경로: 위안화 가치 변동 vs. 한국 수출

❖ 위안화 가치 절상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 와 (-) 쌍방향 영향 있음

- 이 두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최종영향 크기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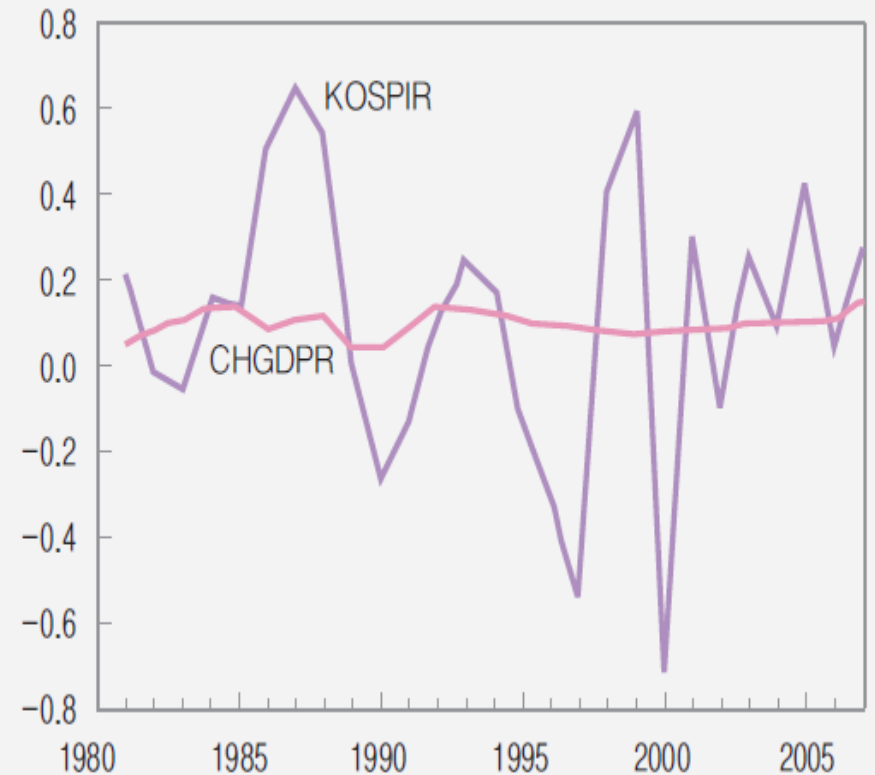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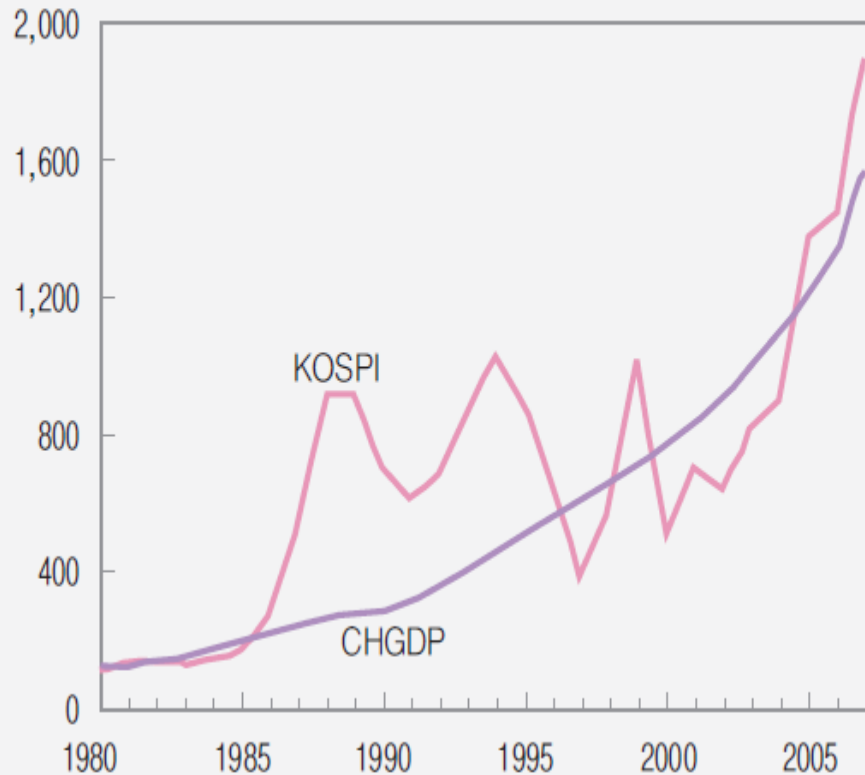
❖ 2000년 -2010년 표본의 경우(실증분석결과):

- 위안화의 가치 1% 상승은 대중 총수출을 0.19% 상승시킴

- 대중 원자재 수출을 0.23%, 대중 자본재 수출을 0.38%, 대중 소비재 수출을 0.43% 상승시킴

주식시장경로: 한국 주식시장과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

〈그림 2〉 KOSPI지수와 중국 GDP 성장률



참조: 안유화, Capital Market Perspective, Vol.2_no.3, 2010

금융위기 극복이후의 중국경제 장기변화에 주목하고 대비해야 함

	대외의존도	자원자급능력	체제경쟁력	과학기술 경쟁력	사회도덕과 신용문화
미국 1929	비교적 높음	강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모두 세계 상위	세계 상위	정상
일본 1990	아주 높음	약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모두 서구지향적으로 선진화됨, 그러나 전통적인 봉건문화가 사회 각 층에 깊숙이 들어가 있음	미국보다 낮음	정상
중국 2008	아주 높음 - 고저축문화와 낮은 노동자 임금, 낮은 농민소득, 사회보장체제 미흡 때문에 소비주도의 경제발전이 어려움 - GDP 지향적인 투자중심의 발전전략은 한계가 있음	약 - 자국 수출상품가격이나 수입자원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없음 - 전기, 석탄 등 자원 부족이 심각	신로체제 마찰이 심함: 경제체제개혁에 비해 정치체제개혁이 미흡 핵심영역에서의 개혁이 실질적인 돌파가 어려움	약함 - 미.유럽. 일본과 거리가 있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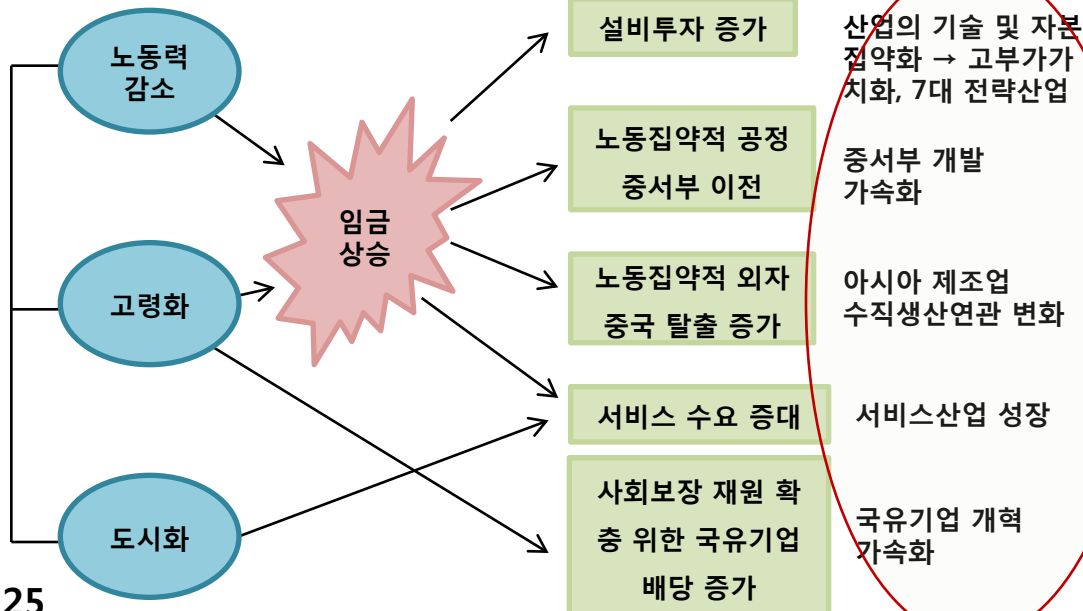
중국경제 잠재성장률 둔화 전망(2012~2022)

- ❖ 2010년말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중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정부의 성장방식 전환 정책 및 대외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 중국의 연 성장률이 6~7%대로 둔화될 가능성이 큼
 - 일인당 국민소득 10,000\$를 기준시점으로 중국경제의 잠재적 성장률 하락이 예상(2015~2017년?) → **한국에 주는 의미?**
- ❖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 개혁과 소비확대를 위한 '부의 재분배' 개혁 사이의 균형 유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정치민주화 요구의 수용 등 이슈가 많음: 문화교육산업을 신흥 기동산업으로 육성하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당 제17기6중 중앙위원회전체회의, '문화흥국(文化興國)'전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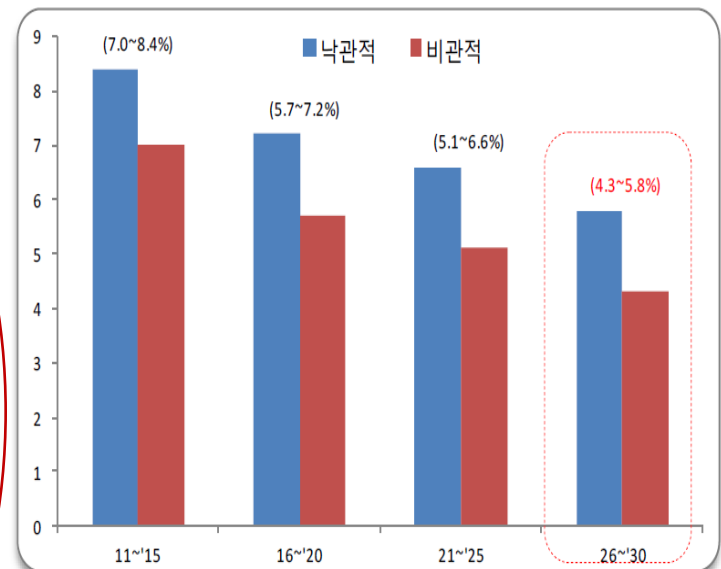
중국의 인구 트렌드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전망

인구 구조 및 동태 변화

산업 구조조정 전개 양상



중국의 시나리오별 장기성장률(%)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성장방식전환의 성공여부를 기준으로 추산

금융강국+7대 신흥전략산업의 핵심 육성부문

- ❖ 중국 목표: “경제강국”, 3요소(제조강국 – 무역대국 – 금융강국)
- ❖ 금융강국 전략: 위안화 국제화 + 홍콩, 상해 국제금융시장 중심 육성 + 세계적인 금융기관 육성

산업	핵심 육성부문	12차5개년 계획기간 투자금액*(예상)	주관부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 자동차, 가전 등 에너지절약 및 혁신강화 - 철강, 공업 부문 낙후설비 도태, 구조조정	3조위안	발전개혁위원회
신정보기술	- 3망(전신,컴퓨터, TV네트워크) 융합 - 고성능 집적회로 및 하이테크 S/W 개발	약 4~4.5조위안	공업신식부
바이오	-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업, 바이오헬스 - 발개위(NDRC) 등 관련 부처 승인 대기 중		발전개혁위원회
첨단장비제조	- 궤도교통시설, 해상석유가스 엔지니어링, 첨단 선반, 공작 및 절삭기계류 개발		공업신식부
신소재	- 나노 중심의 신소재, 복합소재 응용		공업신식부
신에너지	- 발개위(NDRC) 심사 통과 후 국무원에 보고 - 태양광, 풍력, 바이오소재, 핵융합, 지열 등	'20년까지 5조위안	발전개혁위원회
신에너지자동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태양력자동차, 수소에너지 자동차 등	약 300억위안	공업신식부

* 앞으로 5년간('11~15년) 약 10조위안 투자예상(연간 2조위안 예상)

자료: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待到山花烂漫时，它在丛中笑

